

행함에는 >>>

큰 이야기들이 아닙니다. 특별한 이야기들이 아닙니다. 그냥 우리 주변에서 하나님 사랑이 좋아 그 사랑 조금씩 나누어가며 살아가는 사람들의 조그만 이야기들이 여기에 담겨있습니다.

손에 고기를 잡으셨다. 자기 배를 채우려는 생각은 추호도 없다는 것을 목사님과 함께 해온 사람들은 다 안다. 오로지 교인들만을 위해서. 배고픈 이들을 위해서 물고기와 떡들을 들으셨던 예수님의 마음을 목사님은 헤아리고 계실지도 모른다.



## FAITH IN ACTION

영혼이 없는 몸이 죽은 것과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입니다. 야고보서 2:26

# 행함

# 11



2019

열 일곱번째 >>>

하나님과 팔 걸고 행하는  
아기 손 크기의 작은 이야기들



## 이달의 행함킹: 나운주목사 성령의 빛자루

처음엔 그저 스쳐지나는 한줄기 바람인 줄 알았다. 알랑드롱같은 미남도 아니고 마음을 훔칠 훔칠 맨질맨질한 언변을 가진 것도 아니다. 딱히 나와 공감대가 있을 것 같지도 않은, 그저 투박해 보이기만 하던 나운주목사님, 그게 전부인 줄 알았다. 처음 몇번 만났을 때는. 어어? 그런데 그게 아니었네.



오래전, 캘리포니아에서 워싱턴 디시 쪽으로 여행 왔다가 주유소에 들어갔다가 그 험악한 분위기에 놀라 주유를 마치고 불이나케 도망쳐 나온 경험이 있다. 사람이 살 곳이 못된다는 생각이었다. 살벌하게 생긴 사람들 때문에.

나운주 목사님은 달랐다. 나는 도망쳐 나온 거리를 그분은 걸어서 들어가셨다. 나는 피해나온 사람들을 그는 다가가 손잡으셨다. 창피해 죽겠다. 목사님이나 나나 교회 계급만 달랐지 하나님 믿는 것은 마찬가지인데 그분은 사람을 사랑해 다가가신 것이고 나는 무서워 도망친 것이다.

목사님은 그 곳에 들어가셔서 성령의 빛자루질을 시작하셨다. 그 살벌한 동네로 가서서 말씀 폭탄을 원자폭탄처럼 터뜨리셨다. 동영상들 보니 노숙자들에게 피부우시는 과워풀한 말씀이 히로시마 원폭은 저리

가라다. 저렇게 인정사정없이 피부어 대시니 범피자들이 쫓지 않고 배길 수가 있겠는가.

그는 말씀으로만 그치지 않았다. 떡도 주고 물고기도 주었다. 그리스도의 사랑에다 인간적 사랑을 덤으로 주었다. 그러다 보니 사람들이 그를 형님처럼 가까이 한다.

봤냐고? 아직 못보았지만 지속적으로 만나다 보니 안봐도 비디오다. 완전 성령의 빛자루로 워싱턴 지역을 광년 대리석처럼 반짝이게 만드신 것이다. 그래도 못 믿겠다고? 기다리시라. 머지 않아 직접 가서보고 증명할 테니까. '목사님 정치 얘기만 안하시면...' 주변 사람들이 아쉬워한다. 나와 반대의 의견을 가지고 계시지만 거기에 사랑이 있기 때문임을 아니까 좋아 보여서 나는 웃고 만다.

성경을  
옆에 두어 보세요.  
그리고 시간되는 대로  
읽어 보세요.  
그 말씀이  
정말 힘들 때  
힘이 될 수 있어요.



# 작은 행함을 끊임없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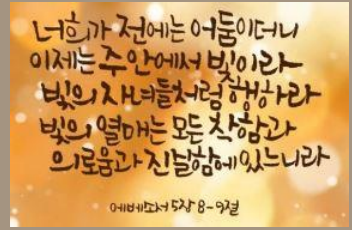
대추  
메릴랜드 거주 어느 권사님,  
딸네 교회 전교인들 나누어  
주라고 대추를 한 팩씩 담아  
보내셨다.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  
무언가 생기기만 하면  
보내신다. 이름없이 빛도없이



어깨에...  
손자빨되는 동료가 다가와  
어깨에 손을 올린다. 나름대로  
힘든 직장 생활 위로랍시고  
하는 것이다.  
어린 친구가 건방지게 어른  
어깨를?  
그런데 왜 기분이 좋지.

성경 과기  
파워풀한 전도, 재정적 계산 없는 나눔,  
그것이 어디에서 나오나 했더니 성경  
말씀에서 나왔다.  
믿지 않던 켈마님이 삶의 본질을 찾기  
위해 10년 넘게 성경에 빠졌다. 그  
성경은 그 분을 그렇게 멋지게 만드셨다.

수모가 수모가 아니다  
현대그룹 김모 부사장, 밋고 판 사람이  
되었다.  
모임에서 술을 거절했다. 거절 당한  
사람은 기분이 상해 부사장의 얼굴에  
술을 끼얹었다. 그래도 부사장은  
웃었다.



## 감자

밭에 감자가 적잖이 널려 있다. 이미 다  
거둔 후 인데도.  
사랑이다. 지역 주민들을 사랑하는  
감자밭 주인은 삶이 벼거운 동네  
사람들을 위해 감자 견이를 말끔하게  
하지 않는다. 적당히 걷어내고 상당  
부분을 밭에 남겨 둔다.  
배고픈 동네 사람들은 그 밭으로 가서  
필요한 만큼 주워간다. 상당히 큰  
밭이어서 상당히 많은 사람들이 주워가  
배를 채울 수가 있다.  
남을 위해 남길 줄 아는 수확, 그렇게  
살아가는 삶이 아름답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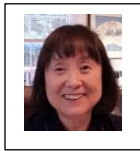
## 원손이 모르게 >>>



# 하나님의 은혜

강샘목자 이야기(3)  
그 날 목장 예배를 끝내고 집에  
오는 내내 마음이 편치  
않았습니다. 그러나 다음날,  
신기하게도 하나님께서는 제게  
답을 주셨습니다.  
-지난 호 마지막 부분-

-유인영기자-



마태복음 26 장-27 절. 너희 가운데서 위대하게  
되고자 하는 사람은 누구든지 너희를 섬기는  
사람이 되어야 하고 너희 가운데서 으뜸이  
되고자 하는 사람은 너희의 종이 되어야 한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로 하여금 달콤한  
유혹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어  
감사합니다. 그리고 우리 목사님네 가족을  
특별히 축복해 주시옵소서.  
-끝-

유인영기자님께서 제 글을 써 주셨네요.  
부끄럽기도 하고 감사하기도 합니다.  
기도 덕분에 월마트에서 해고 당하지 않고 더  
좋아하는 자리로 옮겨 열심히 일하고 있습니다.  
많은 사람을 만날 수 있는 자리여서 전도하기에  
아주 좋은 자리입니다. 생각하지 않았던 회사의  
좋은 점들도 발견할 수 있어서 좋았습니다. 이  
자리를 통해서 많은 열매를 맺을 수 있도록  
지속적인 기도 부탁드립니다.

# 사기꾼들의 교회

우리 교회는 사기꾼들로 득실거린다. 목사님으로 부터 집사님,,  
전도사님, 팀 리더들, 너나 할 것 없이 사기꾼들만 모인 것 같다. 사기도 사기  
나름이다. 남들에게 사기를 치는 것이 아니라 서로에게 사기를 둔구어 주는  
사기꾼들이 것이다.

“요렇게 맛있을 수가!”  
사모님께서 끓여오신 오뎅국 맛이 꿀맛이다. 집에서 먹는  
것이 아니라 그라지 세일, 아니 넓은 주차장에서 하는  
것이니까 주차장 세일이 맞는 것 같다. 물건을 파는 교인들의  
사기를 둔구어 위한 사모님의 따뜻한 마음이 입에 넣기에  
힘들만큼 뜨거운 오뎅국물 같다.  
목사님들도 마찬가지다. 장사하고 있는 교인들을 향해  
격려하시는 열정적인 모습이 사기꾼들에 영락없다.  
손님들이 적다. 지역 행사와 연휴가 겹쳤기 때문이다. 손님이  
적어도 서로에게 힘을 주기 위한 사기는 계속되고 있다.  
같은 교인들에게서 그치지 않는다. 물건을 사가는  
고객들에게도 남는 물건들 공짜로 퍼주어 가며 주님의 사기를  
둔아주고 있다. 사기꾼들이 넘쳐나는 신나는 토요일이다.



# 선교 소식: 사우스 아프리카-1-

## 딸 아이가 보고온 아프리카

딸이 돌아왔다. 아프리카에서 돌아온 만큼 많이 지치고 힘들 줄 알았다. 그동안 남미등에 선교를 가면 환경이 좋지 않아 건강의 문제가 발생해 한참을 고생하곤 했다. 때로는 좀 심각한 상황에 이르기도 했다. 그런 기억들 때문에 걱정이 많았던 것이다. 그동안엔 그래도 멀지나 않은 남미였지만 이번에는 아프리카라는 상당한 거리에 있었기 때문에 더 걱정이 되었던 것이다.

친구집에 도착했으니 데리러 오란다. 카톡 보내오는 분위기며 전화 속에 듣는 음성등이 조금씩 예상을 빗나가게 했다. 도착해서 얼굴을 보니 이걸 고생한 것이 아니라 호강을 하고 온 것처럼 활기찼다. 20 시간 넘게 비행기를 타고 온 얼굴로 믿기 어렵다. 마치 잠시 옆집에 다녀 온 느낌이다.

정겨운 목소리로 들려 주는 선교지 이야기는 사뭇 예상을 뒤엎는다. 참 잘 지내고 왔단다. 음식도 풍부했고 잠자리도 럭셔리했다. 선교사들이 황무지 같던 그곳을 훌륭하게 건설했다고 한다. 그곳에서 어려움 없이 임무를 완수하고 왔단다.

"아이들이 나보고 아줌마래"

세상에 우리 딸이 아줌마라는 호칭을 듣다니.

"근데 거기서는 그냥 언니처럼 편안하게 부르는 호칭이야"

이번 선교 여행은 남아프리카 공화국 고아원 방문이었다. 거기에서 어려운 아이들에게 여름 성경학교를 베풀어 주는 것이었다.

환경 이야기를 들을 때는 더 없이 좋았지만 거기에서 경험한 이야기는 정반대의 마음이 들게 했다.

방증한 성문화로 인해 원치 않는 임신으로 버려지는 아들이 수없이 많고 그런 아이들을 고아원으로 데려다 키운다고 한다.

부모에게서 버려져 동생을 키우던 언니, 그 아이들을 고아원으로 데리고 왔단다.

길 하나 사이에 두고 환경이 천국과 지옥이란다. 한 쪽은 귀족처럼 살고 한쪽은 동물처럼 살고 있단다. 지옥같은 곳에 버려진 아이들을 천국같은 곳에서 데려다 기른다고 한다



### 목장은

우리 교회에서는 각 가정에서 갖는 소그룹 모임을 '목장'이라고 부릅니다. 각 목장에서는 신교지 한글데스크를 선택해 기도와 재정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 강함과 부드러움



다이아몬드보다 더 강하고 벨벳처럼 부드러운 사람으로 평가받는 인물이 있다.

바로 아브라함 링컨 전 미국 대통령이다.

그는 남북전쟁을 승리로 이끌어 미합중국을 더욱 강하게 만들었고, 노예제도를 폐지하여 인권평등이 우선하는 시대의 기초를 세웠다.

어쩌면 예수님과도 닮은 모습이다.

예수님은 사단에게 이끌려 치른 세차레의 시험에서 보기 좋게 승리했다.

또 한편으로는 병든자를 고쳐주고, 배고픈 이들을 먹였으며, 소외된 자들의 친구가 되어 주었다.

예수님의 행적은 이게 끝이 아니다.

세상의 모든 죄를 지고 십자가에 달려 천국의 문을 활짝 열어 놓았다.

이로써 누구든지 예수님을 믿기만하면 구원을 얻고, 천국의 소망을 노래할 수 있게 한 역사의 주인공이다.

### 목장과 선교지

선교지	담당자	선교사
과테말라	김양중	김경택
우간다	강 샘	조이선교회(김진희)
가나	안예립	Chris Insaideo
이집트	구민희	탁수연
탄자니아	노푸른	조병훈
Haiti	강요한	Philipson & Kelsea Georges
CEF		황의정
쿠바		김현진, 장경순

매주 토요일 새벽에는 선교지와 목장을 위해 특별기도를 합니다.



▲ 사우스 아프리카

저 황량한 동네에 그리스도의 봄이 깃들기를

### 이달의 선교 기도제목

#### 탄자니아: 노푸른

목자: 조병훈, 허선옥

- 크루즈 지역 선교
- 이슬람 선교
- 마영진 가족 이민비자
- 초등학교 교육
- ISOM 교육 22명 현지 사역자 말씀으로 세워지도록





# 여기 은공 마음이

작은 교회입니다.

그 작은 교회가 하나님께서 보기 예뻐하시는 교회가 되기를 기도하고 있습니다.

영혼을 구원하는 교회가 되기를 기도하고 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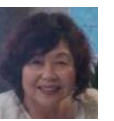
구원받은 사람들이 제자가 되는 교회가 되기를 기도하고 있습니다.



## 김치 배달부 >>>

-강수잔기자-

-젬마님께서 꽤 많은 분량의 김치를 선물해 주셨다. 목사님 가족과 우리 가족에게 주신 더 없이 멋진 선물이다. 목사님 가족이 드셔야 될 몫을 나누어서 목사님들께 무지 죄송하지만 그리고 우리 가족 먹을 것에서 나누어서 가족에게 좀 미안하지만 김치 나눔 잔치를 열기로 마음 먹었다.



전 교인 가족 수대로 나누어 배달을 했다. 아 언제 이런 기쁨을 맛보았던가. 그 맛난 김치를 교인 가정을 돌며 배달하는 재미가 여간 기쁜 것이 아니었다. 기뻐하며 받는 교인들의 밝은 미소가 마음을 더 밝게 만들었다. 맨날 이런 일만 하면서 살면 좋겠다. 이런 기쁨을 주신 젬마님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아참, 이런 귀한 분을 연결해 주신 김복성님도 얼마나 감사한지 모른다. 김복성님의 나눔 또한 젬마님 못지 않다. 김복성님께도 무한 감사를 드립니다. -아픈가요? 예수님이 노크하시는 거예요. 슬픈가요? 예수님이 노크하시는 거예요. 어려운가요? 예수님이 노크하시는 거예요. 다 내려 놓고 문 살짝 열어 보세요. 그리고 예수님 맞아 보세요.

## 공지 사항

- 크로마하프 연주단원. 초보자 환영
- 제 2기 행함 기자 교실 수강생.
- 신앙일기 쓰기 회원 모집



14640 Soucy Pl.  
Centreville, VA 20120  
703)625-3979

## 목회자 컨퍼런스를 다녀와서

지난 월요일부터 목요일까지 휴스톤 서울교회에서 목회자 컨퍼런스를 다녀왔습니다.

111 명의 목회자 선교사들이 모여서 어떻게 하면 하나님에 기뻐하는 건강한 교회를 만들 수 있을까를 고민하였습니다.

제가 참석한 소그룹은 '앞으로 이민교회의 미래를 어떻게 준비 할 수 있을까?' 에 대한 고민을 같이 하였습니다. 제가 발표한 내용은 우리 은혜공동체 예배에 대한 것이었습니다. 우리교회는 한 달에 두 주는 영어권과 한어권이 같이 예배를 드리고 한 달에 두 주는 따로 예배를 드린다고 하니 다들 놀라들 하였습니다. 몇 주 전에 PCA 교단 목사님이 우리 교회가 영어권과 한어권이 같이 예배를 드리는 것을 보고 깜짝 놀라했습니다. 그리고 그 분이 하는 말이 지난 몇 달 동안 많은 교회들을 방문했지만 이런 교회는 처음 봤다고 하였습니다. 어떻게 영어권과 한어권이 이렇게 좋은 관계를 가질 수 있는지 궁금하다고 하였습니다. 그래서 몇 주 전에 PCA 영어권 목사님들이 리사 전도사님을 불러서 같이 저녁을 먹으면서 우리 은혜공동체 교회에 대해서 이야기를 들었다고 하였습니다.

저희와 같이 한 달에 두 번씩 한어권과 영어권이 같이 예배를 드리는 교회는 아마 없을 것입니다. 물론 영어권에서 한어권과 같이 예배드리는 것을 힘들어 하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또한 한어권에서도 영어권과 같이 예배드리는 것을 힘들어 하는 분들이 계십니다. 그러나 힘들어도 좀 참고 인내하면 좋은 결과가 있을 것입니다. 한류열풍 때문에 한국어를 배우고 싶어 하는 외국분들이 많이 생겨서 외국분들을 모시고 와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우리가 영어권과 한어권이 예배를 같이 드리는 가장 큰 이유는 같은 spirit(생각)을 가지려는 것입니다. 우리교회는 신약교회를 회복하려는 분명한 목적을 우리 영어권과 한어권이 같이 가지고 영원구원하여 제자를 만드는데 존재목적이 있습니다. 힘들지만 영어권과 한어권이 같이 모델이 될 만한 교회를 함께 만들어 봅시다.



## 편집 후에

-멈춤은 멈춤이 아니라 퇴보다. 멈추면 그 자리일 줄 알고 서있으면 다른 것들은 앞질러 흘러버린다. 그러다 보면 자기는 뒤쳐져 있는 것이다. 누군가는 말한다. 멈춤은 화석이 되는 거라고.

-깊고, 짧고, 정감있고, 순수하고, 솔직하고, 현대감각에 맞게, 비신자들도 부담없이 접할 수 있게. 그리고 모두의 언어로 하나님께 마음 문 열도록. 행함의 성격이다. 신자와 비신자들의 공통 공감언어를 추구한다는 것은 쉬운 것 같으면서도 어려운 점이 있다. 그 어려운 점을 조금씩 극복해 나가는 것이 재미있다.

-행함을 위한 기도 제목 행함 잡지사 설립 저를 포함해 함께 일하시는 편집인, 기자님들 모두 정직원이 되어서 신나게 일할 수 있는 꿈이 이루어 지도록 기도 부탁드립니다. 그 꿈이 이루어 지는데 아래에 있는 제 웹사이트에 가서서 물건을 구입해 주시면 그 꿈이 성큼 앞으로 다가 옵니다.

## 은혜공동체교회

Service & Meeting (예배 안내)

Sunday Worship Service (주일)

예배: 1: 30pm

후원  
김복성  
임재철

발행인: 안형준목사  
편집인: 김양중/강샘  
기자: 유인영/ 이유진/ 강수잔

[www.samguitar.net](http://www.samguitar.net)

아마존에서 물건 구입하실 때 이 사이트로 가세요. 가시면 아마존 광고가 있어요. 아마존 광고에 들어가셔서 물건 구입해 주시면 수익금이 행함으로 들어 옵니다.